



濁流清論

제41호 2016년 3월 15일(화)

발행인: 이순일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yj263@ajou.ac.kr)로 보내주시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물 뜨기'	1
<u>특집</u> 신임 교원 소개	3
<u>소통과 담론</u> 교육우수 교수 대상 수상소감	8
<u>교수들의 건강칼럼</u> 수원시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함께하는 "수원시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를 소개합니다!	9
<u>소식</u> - 2015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11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물 뜨기'

총장 김동연

취임 초기 '총장에게 바란다'라는 탁류청론에 실린 단과대학별 교수들의 글을 보고 제가 답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총장이 탁류청론에 글을 쓰는 것이 처음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학교를 생각하는 여러 교수들의 충정에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행사에서 만난 강충권 교수님께서 제게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총장 취임 1년을 맞는 사회에 대한 글이었습니 다. 이번에 다시 귀한 지면을 할애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손사래를 쳤습니다. 바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교수님께서 제 사무실까지 찾아 와 제차 말씀을 하셔서 더는 사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매 학기 두 번씩 중앙도서관 옆에서 '총장 빵 행사'를 할 때마다 시종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수많은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늘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시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학교에 온 지 막 1년이 지났습니 다. 함께 한 시간이 1년밖에 안 되었지만 학위수여식 서 졸업생들을 보니 든든한 마음에 앞서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학위증을 한 명 한 명 주면서 혹시 얼굴 아는 졸업생이 제 앞에 서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 했습니다. 다음 날은 신입생 입학식을 했고 며칠 뒤 편입생들도 만났습니 다. 새 학생들을 만나며 가슴이 설렘습니 다. 개강에 맞춰 다시 학교에 돌아올 학생들을 생각해 도 마냥가졌습니 다. 다양한 가능성을 각각의 그릇에 담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겠다는 사명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 다. 이제 대학생활 1년 차에 불과하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아 이런 게 학교에 있는 맛인가' 하는 주제넘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지난 1년을 저는 무척 즐겁게 지냈다는 사실을 깨달

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려고 노력했고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저는 학생들과 ‘총장 북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제가 한 권씩 책을 정해 신청한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다 읽고는 만나 자유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첫 책으로 걸리버 여행기 완역판을 골랐고, 이어 ‘다윗과 골리앗’,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선정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직전 다음 책을 정했는데 신영복 선생의 ‘담론(談論)’이었습니다. 공고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이 작고하셔서 본의 아니게 선생의 마지막 유고(遺稿) 책을 고른 것이 되었습니다. ‘담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파트는 고전에 대한 것입니다. 시경, 주역, 논어, 공자, 맹자 등 동양의 고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 주역을 ‘물 뜨는 그릇’으로 비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그릇으로 뜨면 그 그릇에 담긴 물은 바닷물이기는 하지만 바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은 어차피 그릇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주역’이 비록 부족하고 작은 그릇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세계를 뜨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신영복, 담론 74쪽)

조금 차원이 다른 비유입니다만, 저는 우리 학교가 당면한 여러 도전과제나 문제, 또는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할 일들을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떠서 옮겨야 할 ‘큰 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학교의 구성원은 누구나가 ‘물 뜨는 그릇’이 돼서 물을 떠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물을 뜨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제 노력에 우리 구성원들이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때로는 각자가 ‘물 뜨는 그릇’이 돼서 함께 물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물을 떠다는 것 자체가 체계 있어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 ‘물 뜨는 그릇’이 작아 많이 뜨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기꺼이 함께 물을 뜨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학교의 앞날을 위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즐거운 마

음으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정에서 만나는 푸릇푸릇한 우리 학생들을 보고 가슴 벅차오를 정도로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려는 길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하고, 아니 혹시 일부는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는 하면서, 또 한 식구라는 동지의식을 공유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겨울방학을 마치면서 전체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고맙게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본부에서 교수들께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자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쌍방 소통과 토론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나 본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의견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듣고 싶어서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웃는 얼굴로 만나 서로 반가운 인사도 나누고 밀린 이야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어울리고 싶어서입니다. 주제 중에는 딱딱하고 골치 아픈 내용도 있겠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잔칫집 같은 분위기로 모임을 가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가끔적 많은 교수들이 참여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로(言路)를 트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중간 쉬는 시간과 워크숍 마치고는 차나 와인이라도 한 잔 하면서 정담을 나눴으면 했습니다. 덕분에 교육대상을 받은 노명우 교수의 자당(慈堂)께 바치는 눈물 어린 헌사(獻辭)도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과란학기에 지도교수로 참여하는 전용호, 박미화 교수의 각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족에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고백합니다. 우리 학교를 사람 맛 나는 커뮤니티로 만들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 외에, 학교의 경영을 맡은 CEO로서 제 의도가 숨어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단기적 효율성에 기초한 성과가 아니라 신뢰와 이해의 바탕 위에서 나오는 지속가능한 결실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물을 뜨는’ 아주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해서입니다. 그런 분위기라야 간디가 이야기하는 7대 사회악 중 ‘인격 없는 교육(knowledge without character)’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고백을 부디 성과지상주의 발상이라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맺을까 합니다. 제가 취임한 후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마 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벌이는 일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고 제 요구 수준이 높아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묵묵하게 잘 따라줬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도 저와 함께 각자의 그릇으로 '물을 뜨신' 분들입니다.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일하는 자세도 점검해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계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직의 경

쟁력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교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신뢰와 이해(理解)로 몽친 우리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원들이니까요.

지난 1년의 소회뿐 아니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제 각오도 밝혔으면 했는데 어느 정도 앞에서 암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물 뜨겠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집

신임 교원 소개(가나다순)

기계공학과 강대식

아주대학교 선배 교수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기계공학과에 새롭게 함께 하게 된 강대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기계공학은 고전역학을 기반으로 기계 및 관련 장치 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 이용, 운전 등에 관하여 기초적 또는 응용적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자동차, 선박, 건축과 같은 분야에 널리 응용이 되어왔기에 주로 크고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문간 경계가 낮아지고 서로가 긴밀히 융복합되어 가는 현재의 연구 추세를 따라 기계공학 역시 작고 섬세한 연구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 굵기 만한 사이즈의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그 머리카락의 수천 분의 일에 해당하는 나노 사이즈의 구조를 만들어 김서림을 방지하는 유리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박사과정 동안 저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나노 패턴을 제작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초고감도 센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기계공학 내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첨단 고부가 가치가 요구되는 미래에는 이러한 연구들(NT)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대 기계과에서 나노 가공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학과내의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배우고 또 다른 분야의 연구실과도 협업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주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도 최신 연구 기술을 가르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아주대학교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하며 배운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리고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 또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치과학교실 김영호

안녕하세요?

저는 3월 1일 자로 치과병원장 및 임상치의학대학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영호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 후 치과교정과 교수로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교정 환자 진료와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얼마 전 총장님께 신입 교수 임명장을 받기 위하여 참석하여 보니 임명장을 받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혈기 왕성한 젊은 조교수이신데 홀로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대학에 오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회도 새롭고 책임감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축하해 주시는 총장님의 맑은 눈과 신입 교수님들을 축하하러 오신 부총장님 이하 아주대학교의 중진 교수님들의 미소를 보며 ‘오기를 잘했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내린 결정에 스스로 감사하였습니다.

아주대 의료원 치과 분야의 진료와 연구, 교육의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지난 20년간 공직 생활에서 가진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동료 교수님들의 치과 치료에 관해서는 치과 교수진들이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치과병원과 이제 막 도약을 시작하는 임상치의학대학원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관 1층 치과 건너편에 위치하게 된 치과병원장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므로 오다가다 들르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모정순

만물이 생동하는 3월,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임용된 모정순입니다. 짧은 소개글을 통해 이렇게 아주대 구성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처음 생명현상에 대해 공부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을 제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하자면 학위 과정 동안 저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노화질환들의 발병기전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미국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으로 박사 후 연구원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 곳에서 Moores Cancer Center 소속으로 병원과 연계되어 기초와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저 역시 간암과 유방암에서 Hippo pathway에 의한 세포의 증식과 발암기전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초파리 genetics를 통해서 Hippo pathway가 세포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우스 유전체 연구를 통하여 Hippo pathway가 포유류에서도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포 내는 발생단계에서 성숙한 개체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여러 가지 신호전달경로들이 마치 거미줄같이 얽혀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하고 포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Hippo pathway 또한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혀져 있는 많은 신호전달 회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특히나 유전체안정성 유지에 있어서 Hippo pathway의 역할 및 기전연구를 통해 보다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신호전달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신호전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복잡한 신호전달기전을 규명함으로써 치료용 의약품 개발과 gene therapy, signaling chip 개발 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소속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참된 인재를 길러내고, 양질의 연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학과 약리학교실 양시영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 1일부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에 임용된 양시영입니다.

저는 1995년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입학하여 2003년 학부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2005년 석사를 마치고, 2010년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지도교수: 전장수 교수님)를 졸업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Harvard Medical School에서 Post-Doc training(P.I Dr. Diane Mathis)을 하였으며 2016년 2월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Understanding of Treg in autoimmune disease'와 'Development of therapy techniques of arthritis'이며 최종적으로 노인성 자가면역질환 및 관절염 예방 치료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자유로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있다는 점을 익히 듣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재직 중인 교수님들에 비해 연구 경험 및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는 약하지만, 젊은 패기로 열심히 연구하여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에 계시는 여러 선배 교수님을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아주대학교에 계시는 선배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아주대학교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의료정보학과 윤덕용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된 윤덕용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의료정보학으로 의학과 정보학이 융합된 학문입니다. 최근 알파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세돌과의 바둑 경기에서 연승을 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보험 청구 자료 및 다양한 유전체 데이터 등 의생명 데이터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의학연구가 새로운 의학 연구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생명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중요한 분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저와 매우 깊은 인연을 맺어 온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하였고, 그 후에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아주대 덕분에 많이 성장하여 이제 제가 아주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후배와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의학과 뇌과학과 장재락

저는 올해 3월부터 의과대학 뇌과학과에서 조교수로 일을 시작하는 장재락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학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NIH(미 국립보건원)에서 희귀난치성 신경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뇌과학과는 의과대학 내에서도 주로 뇌와 연관된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계 질환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교의 의과대학에 비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신경과학 분야를 오랫동안 특화 시켜왔고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임용된 해당 분야 교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느꼈던 아주대학교의 이미지는, 실사구시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학교답게 학문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 진료, 연구 모든 부문에서 내실 있게 발전해 왔고, 임상연구와 기초연구가 모두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에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국내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타 학과와의 학제 간 공동연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임용되고 난 뒤 며칠간 겪은 많은 일이 낯설고 서툴지만, 신입 교원의 열정으로 꽤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의과대학의, 나아가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대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교로 거듭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학교에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시스템학과 정재성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에너지시스템학과에 조교수로 오게 된 정재성입니다.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께 지면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에 대해 소개드리면 저는 아주대학교로 오기 전에 미국 Department of Energy (DOE) 산하의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서 Assistant Scientist로 2년 근무하였습니다. 학위는 Virginia Tech에서 박사를 전공하였고,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에서 석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전력 계통 분야로서, 그 안에서 세부전공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재생 에너지가 배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풍력발전을 위한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를 위한 효율적인 제어 시스템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교수님들의 협력을 통하여 앞으로도 더욱 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하지만 학위과정과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내 전력 계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주대의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한국 전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학과 진효언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약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진효언입니다. 탁류청론을 통해서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2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 및 Scientist로 근무했습니다.

주요 연구는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기능성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체 모방

생물나노재료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이들을 의약학 분야에 접목하여 오묘한 생체구조의 형성원리를 탐구하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생체조직 재생/치료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생체소재의 개발, 유전자 및 약물의 전달, 암 진단 및 치료, 화학물질 검출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수년 전 약학대학에 진학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신약개발의 꿈을 아주대학교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선배, 멘토가 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와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계공학과 최영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봄학기 기계공학과 신입교원 최영만입니다. 저는 KAIST 기계공학과에서 2008년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립연구소 중 하나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에서 Guest researcher로 3년간 근무하였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최근까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 연구분야는 “인쇄전자”라는 분야입니다. 인쇄전자 기술은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해 왔던 전자소자를 전통적인 기법인 인쇄라는 기술을 접목하여 연속적이고 유연한 기판에 전자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차세대 제조 기술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인쇄전자 분야는 재료, 기계, 전자 등의 학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융합분야로서 학내에서 교수님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쇄전자 공정의 개발과 정밀 인쇄기술의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관련 산업에서 아주대학교의 학생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참석한 대학 및 전체 교수 워크숍에서 선배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 경험을 들으면서 선배 교수님들의 업적과 열정에 크게 감명 받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신 길을 저 또한 연구에 대한 열정과 교육에 대한 희망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비뇨기과학교실 추설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신입 조교수로 임용된 비뇨기과 추설호입니다. 저는 성균관대 의대에서 학생시절을 보냈고 인턴, 전공의, 펠로우 수련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받고 2년 전 처음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진료조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어색하고 어찌 할 바를 잘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변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의대 교수회에서 환영 만찬을 열어주시고 여러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신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올해 조교수로 임용되어 이제부터는 진짜 아주대학교의 일원이 된 기분입니다. 향후 진료 및 연구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명성에 뒤처지지 않게 정진하여 아주대학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공헌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뇨기 종양 및 비뇨기 생리학 분야의 기초실험을 구상 및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비뇨기과학교실에서 기초실험에 대한 기반시설이 없어 여러 다른 과 교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할 것으로 예상 되오니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담론

교육우수 교수 대상 수상소감

사회학과 노명우

교육우수 교수 대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손뼉소리가 난다고 하듯,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상은 학생들과 공동수상이라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전 단지 그들을 대표해서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가 기대하는 학생과 교육자가 실제로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은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종입니다. 교육자는 때로는 괴물같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새로운 인종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인종인 그들은 소비주의의 세례를 받고 자랐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익숙한 그들은 스스로 소유하는 것을 낯설어 합니다. 아니 때로는 두려워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소유해야 했던 경험이 아주 부족한 채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어느 시대의 대학생들도 겪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새로운 인종이 불안감과 초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청백전, 삼포시대, 이태백, 이구백, 돌취생, 인구론, 청년실신 등입니다.

청백전은 청년백수 전성시대라는 뜻이고, 아주 잘 알려진 삼포시대라는 표현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으로 이태백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구백은 20대의 90%가 백수라는 뜻입니다. 이퇴백은 20대에 퇴직한 백수를 의미하며 입사했다가 퇴직해 다시 취업준비생이 됐다는 뜻으로 '돌취생'도 있습니다. '청년실신'은 등록금 대출 등으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인구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인구론'은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문계 전공인 학생들은 마치 인문계 전공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마치 죄를 지은 듯한 느낌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의 단점만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들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그 텍스트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다시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전공의 학생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학과 전공과목으로 신설한 <사회학적 상상력과 고전읽기>라는 과목은 바로 인문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고전읽기>는 강의로 구성된 과목이 아닙니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고전읽기>는 다 함께 텍스트를 읽고, 서로 읽은 텍스트에 대해 말하고 말하기를 통해 발전된 자신의 생각을 또 다른 텍스트로 쓰고 이 텍스트를 또 다시 공유하는 무한반복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경험이 부족했던 이들이 과연 이 수업의 의도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했지만, 제 걱정과 달리 학생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잘해주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수업, 강의를 하는 사람도 식곤증을 느끼는 때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고 토론하고 말하고 쓰는 수업에서 어느 누구도 졸지 않았고 출석체크를 하지 않아도 결석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이 학생들을 보면서 저 또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대 교육은 감정노동이 되었습니다. 교육자가 지적 노동이 아니라 감정노동을 하고 있음은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정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한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때로 감정노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감정노동 위에 지적노동이 꽃피우게 될 거라는 희망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자는 감정노동을 통해 교육이라는 행위가 감정노동을 거쳐 지적 노동으로 승화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고전읽기>라는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감정노동으로 시작했지만, 종강을 할 때 감정노동은 지적노동으로 바뀌었고 그 어떤 학기보다 짜릿한 느낌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크 랑시에르가 <무지한 스승>에서 말한 구절을 옮기고 싶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고전읽기>라는 수업에서 저 또한 랑시에르의 말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랑시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능력이란 설명자의 세계관이 지어내는 허구이다.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니다. 즉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가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그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교육자의 행위이기 앞서, 설명은 교육학이 만든 신화이다. 그것은 유식한 정신과 무지한 정신, 성숙한 정신과 미숙한 정신,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똑똑한 자와 바보같은 자로 분할되어 있는 세계의 우화인 것이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수원시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함께하는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를 소개합니다!

의학과 소아청소년과학교실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3월, 이제 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와 아직은 번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호흡기 및 피부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 때, 요즘, 수원시의 청정지역인 광교산 자락에 넉넉하게 자리한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는 어떤 곳인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는 최근 사회적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환경성질환 중 하나인 아토피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건립된 센터입니다. 아토피피부염을 포함한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의 아토피질환은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으로, 아토피 소인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많은 환

경유해물질에 노출이 증가하면서, 아토피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토피 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며, 부적절한 관리와 검증되지 않은 대안요법의 사용으로 그 고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환경부와 경기도, 아토피제로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함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대표적인 컨소시엄 사업으로 기획·설립되었고, 지역 내에서 공공의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의료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특히 본 센터는 유혜수 부센터장(알레르기 전문의, 아주대학교병원)이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성이 강조된 센터로, 그 외에도 알레르기 교육 전문 간호사, 환경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행정전문 인력이 함께 호흡하면

서 의료, 환경,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는 아토피피부염을 포함한 아토피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가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인 ‘개인별 맞춤형 관리’는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간호사, 영양사, 환경교사)에 의해 약 90-120분간 개인별 1:1 맞춤형으로 아토피질환에 대한 진단과 상담, 그리고 자기관리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유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환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미술·동화놀이·숲활동 등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스트레스 완화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 프로그램 중 ‘숲속학교’는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특화된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친환경 센터와 인근 광고산에서 자연 체험을 통한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토피 질환 예방법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인형극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의 어린이 집, 학교보건소 및 복지기관 등 그 외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성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경기 남부권 지역에서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atopyzerosuwon.or.kr)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나?

본 센터는 “아토피센터”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아토피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며, 수원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이용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질환이 없더라도, 친환경 공간과 숲에서 자연 체험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아토피질환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인식 개선

을 위해 무료공개강좌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프로그램 및 이용방법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에 맞춰 설계된 공간에서 진행되는데, 센터의 모든 공간은 편백나무나 단풍나무, 가문지 나무 등의 목재와 황토보드벽면, 목모 등의 친환경 건축자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며 환경성아토피질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센터 건물은 1층 대강당 및 친환경식당, 2층 맞춤형 관리실 및 키즈플레이, 아트플레이, 컴퓨터 그리고 3층은 캠프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BF(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을 받은 건물로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식사를 경험하고자 원하는 일반인의 경우는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친환경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잠시 쉬어가실 분은 언제든지 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 (1629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233번길 144 (조원동)
- 대표번호: 031-247-2900
- 팩스번호: 031-247-2901
- 홈페이지: www.atopyzerosuwon.or.kr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1:1 맞춤형 관리를 진행하는
유혜수 부센터장(알레르기전문의)



소식

교수회 소식

2015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다산관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는 의대를 포함한 아주대학교 교수님 80분 정도가 참석해주셨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608
전자 메일: jjj263@ajou.ac.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263호

교수회 신강현 총무의 사회로 정기총회는 시작되었으며, 이순일 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는 크게 보고 사항과 논의 사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 사항 -	- 논의 사항 -
1) 2015학년도 교수회 사업 보고 (1)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 개최 (2) 교원 보수 (3) 인사 (4) 발전전략 검증 소위원회 (5) 기타 사업 2) 감사 보고	1) 총장평가 실시의 건 2) 차기 교수회 의장 선출 시기의 건 3) 기타 대학의 중요 현안

한 해 동안 교수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고해드렸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매 학기 1회 씩 개최하는 신입교원 환영 간담회와 2015년 8월 21일에 전체교수 워크숍 내 개최한 교수회 본교 확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 때 배포해 드린 자료집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사항에 이어 교수회 감사이신 구형건 교수님의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 및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는 교수회 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개최됩니다. 교수회 정기총회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학교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음 정기총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회: 이재호(편집책임), 강충권, 구형건, 김상배, 노명우, 윤호섭